

2026. 7. 27.(월)
보도시점
공고 시작(12:00) 이후
배포
2026. 7. 27.(월)

“신약 연구 개발 3상까지 지원한다” 임상3상 특화펀드 1,700억 원 운용사 선정

- 2027년까지 1조 원 메가펀드 조성 -
- 10개 내외 기업 대상, 1,200억 원 조성 시, 조기 투자 가능 -

보건복지부는 임상3상 특화펀드 운용사로 ‘한국투자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후기 임상 기업 10개 내외를 대상으로 신약 완주를 집중 지원하며, 80% 이상 자금 확보 시 조기 투자로 신속히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7일(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후기 임상 집중 지원을 위한 **임상3상 특화펀드** 주관 운용사로 ‘한국투자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해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임상3상 특화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 **총 4개의 운용사가** 신청하여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 발표(PT) 심사** 등을 거쳐 주관 운용사를 선정하였다.

* (모태펀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출자하여 조성

이번에 최종 선정된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 인력의 역량과 그간의 운용사의 투자 수익률, 민간 자금 조달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기존 목표 결성액(1,500억 원)을 상회하는 1,700억 원 규모로 결성목표를 설정했다.

임상3상 특화펀드는 신약 개발 과정 중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위험도가 높은 후기 임상 단계의 투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임상 완주 및 상업화**까지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 펀드이다.

* 현재 임상3상 중인 파이프라인 수 : 57개(‘25년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 조사 결과, 국가신약개발재단)

운용사는 펀드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혁신 신약 및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실제 임상3상을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한국투자파트너스’는 10개 내외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 기존 의약품 대비 개선된 효과를 보인 의약품

보건복지부는 기존 목표 결성액(1,500억 원)의 80%인 1,200억 원 이상만 확보되면 투자를 조기에 개시할 수 있는 **‘우선 결성 방식’**을 허용하여, 자금이 시급한 제약·바이오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 조성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에 이어 이번 임상3상 특화펀드까지 성공적으로 조성되는 경우, 총 9,496억 원 규모의 자금이 확보되어 ‘1조 원 메가펀드 조성’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성창현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펀드는 우수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도 자금 부족으로 후기 임상을 주저했던 기업들에게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임상3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신약 개발은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뿐 아니라 이를 끝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정부가 **최초로 조성한 임상3상 특화펀드**는 혁신적인 신약연구개발이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임상3상 특화펀드 개요

담당 부서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오성일 (044-202-2960)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044-202-2969)



붙임

임상3상 특화펀드 개요

□ 조성 계획

- (필요성) 신약 연구개발에 있어 **임상3상은 비용이 막대하고 회수기간이 길며, 실패·규제 리스크가 높아 민간투자자본 조달 어려움**
 - 민간 자본이 꺼리는 임상3상 등 고위험 구간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정부 투자 필요
- (투자대상) 혁신 신약 및 바이오베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임상 3상 추진 중인 기업
- (투자규모) 1,500억 원* (정부 700억 원+국책은행 200억 원, 공공출자 비율 60%)
 - * '26년 복지부 출자금 600억 원, 기존 펀드 회수금 100억 원, 기은 100억 원, 수은 100억 원

□ 기대 효과

- R&D 지원 이후 대규모 임상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약·바이오산업**에 민간투자 **활력 제고**
-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등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요 출자조건 >			
펀드 결성규모		1,500억 원	
출자규모	보건복지부	700억원(신규600억 원+회수100억 원)	
	국책은행	IBK기업은행 100억 원 한국수출입은행 100억 원	
존속기간		펀드 성립일로부터 8년 이내 * 조합원 전원동의를 거쳐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기준 수익률		IRR 7% 이상	
조기결성방식		결성목표액(1,500억 원)의 80% 이상(1,200억 원)인 경우 우선 결성 가능	